

#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장 (jcheo@kiep.go.kr, 044-414-1042)

**강구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이형근**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hkleee@kiep.go.kr, 044-414-1069)

**박은빈**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 차 례

1. 미·일 정상회담 개요
2. 공동성명 주요 내용
3. 시사점

## 주요 내용

-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4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일 정상회담과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담 등을 진행함.
  -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공동성명을 발표함.
  - 기시다 총리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력 강화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함.
  - 이번 미·일 및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의 개최 배경에는 △글로벌 이슈 및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 필요성, △미국의 동맹전략이 '거점 중심(Hub and Spoke)' 구조에서 '격자형(lattice-like)' 구조로 변화하는 점, △미·일 내부의 정치요인 등이 작용함.
- ▶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미·일 간 △방위안보 협력 강화, △우주 분야 새로운 프런티어 개척, △기술혁신, 경제안보, 기후변화 관련 대응 주도, △글로벌 외교 및 개발 영역에서 연계 강화, △민간 사이의 유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군사·안보 분야] ① 미·일의 역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조치에 대해 미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② 자위대와 미군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며, ③ 일본의 반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임.
  - [경제안보 분야] AI와 양자(quantum)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중요 광물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등 폭넓은 영역의 협력 사업들이 논의되었고, 공동성명 및 팩트 시트(Fact Sheet)에 양국 산관학 차원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김.
- ▶ 향후 글로벌 이슈 및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 및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정보 공유 및 방산 분야 기술협력,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유지 등의 차원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핵심신흥기술(CET) 부문에서 한·미·일 3자간 기술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다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영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리 국내의 경계감 등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및 동아시아 정세 안정에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음.

# 1. 미·일 정상회담 개요

## 가. 주요 일정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4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일 정상회담과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담 등을 진행함.
- 4월 10일 오전(미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본고 2장 참고).
- 4월 11일 오전(미 현지 시각), 기시다 총리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들의 글로벌 파트너십(For the Future: Our Global Partnership)'이라는 주제로 미 연방의회 상·하원 대상으로 합동연설을 함.
  -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 함께하겠다고 역설
  - 일본은 최근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등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
  - 또한 일본이 미국의 최대 직접 투자국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일 양국의 협력 분야를 차세대 신기술 및 우주 등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표 1. 기시다 총리의 방미 주요 일정

일자	내용
4/9(화)	- 미·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4/10(수)	- 미·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공동성명) - 국민 만찬 참석
4/11(목)	- 미 상·하원 합동연설('미래를 향하여: 우리들의 글로벌 파트너십') -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담
4/12(금)	- 노스캐롤라이나주 토요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부지 방문 - 노스캐롤라이나주 혼다 에어크래프트 컴퍼니 방문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방문

자료: 저자 작성.

- 4월 11일 오후(미 현지 시각),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3국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에 합의함.
  - 3국 정상은 중국이 남·동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하며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확인
  - 기시다 총리는 '일본-필리핀 부대간 협력 원활화 협정(RAA)', '정부 안전보장능력 강화 지원(OSA)',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기존의 협력에 더하여 선박과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미·필리핀 정상은 환영을 표시

- 3국 사이의 협력 분야로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의 루손(Luzon) 경제회랑 협력,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비롯해 △정보통신, △사이버, △그린에너지, △해상보안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 나. 배경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함.

- 미·일 양국은 중국을 강력해진 힘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으로 인식하나, 어느 일국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임.
  -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10년에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으며, 2021년에는 미국경제의 75.2% 수준까지 다다른 후 최근 경제성장 둔화로 2023년에는 65% 수준으로 감소<sup>1)</sup>
  -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의 앞마당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 단독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제시<sup>2)</sup>
-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동맹국인 일본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기술 개발 등에서 미·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전략이 ‘거점 중심(Hub and Spoke)’ 구조에서 ‘격자형(lattice-like)’ 구조로 변화하면서 일본 및 필리핀과도 새로운 소다자 협력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미국은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기존의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한 단일 대응(Hub and Spoke) 대신 여러 형태의 소다자 협력체(lattice-like) 구축을 통해 중국 봉쇄망을 촘촘히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음.
  -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미·일·호 협력체 등 미국 주도의 새로운 소다자 협력체 결성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제기
-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해양 영유권 분쟁이 가열됨에 따라, 미·일 양국은 필리핀과 3자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자 함.
  - 필리핀에서는 친중 성향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2022년에 당선된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 중

1)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검색일: 2024. 4. 11.).

2) “How the U.S. Could Lose a War With China”(2019. 7. 25.),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9/07/china-us-war/594793/>(검색일: 2024. 4. 11.); 이성훈(2022),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171호.

■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귀결시켜 자국 내 정치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임.

-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일본,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 지지율 상승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임.
  -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이 4월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45%)과 트럼프(46%)는 오차범위(±3.3%) 안에서 초접전 중<sup>3)</sup>
- 기시다 총리 또한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외교 분야의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최근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실추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 NHK가 4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3%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sup>4)</sup>

## 다. 관련국 반응

### 1) 미국

■ 미 의회 상·하원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미를 초당적으로 환영하면서 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함.<sup>5)</sup>

- 결의안에는 미·일 동맹이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김.
- 또한 결의안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3국 관계가 인도태평양 안보를 증진하고 자유·민주주의 보호, 인권·법치 수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다만 기시다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일본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지만, 강경 보수파 의원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며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함.<sup>6)</sup>

■ 전문가 및 미국 언론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국민 방문으로 쿼드(QUAD) 동맹국 모두가 백악관을 국민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가장 중추적인 관계인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십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함.<sup>7)</sup>

3) “Cross-Tabs: April 2024 Times/Siena Poll of Registered Voters Nationwide”(2024. 4. 13.),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4/04/14/us/elections/times-siena-poll-registered-voter-crosstabs.html>(검색일: 2024. 4. 13.).

4) 「內閣支持率」(2024. 4. 8.), *NHK*,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text=%E5%B9%B4%E4%BB%A3%E5%88%A5%E3%81%AB%E8%A6%8B%E3%81%BE%E3%81%99%E3%81%A8,%E3%81%8C%E3%81%BB%E3%81%BC%E3%81%82%E3%82%8A%E3%81%BE%E3%81%9B%E3%82%93%E3%81%A7%E3%81%97%E3%81%9F%E3%80%82>(검색일: 2024. 4. 13.).

5) 「미 상하원서 기시다 총리 방미 환영 결의안 발의 “미한일 협력 필수적”」(2024. 4. 11.), 『VOA』.

6) 여당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2024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지원을 포함한 긴급예산안이 가결되었지만,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7) “Biden-Kishida Summit: The Japan-US Alliance Has Gone Global”(2024. 4. 11.), *THE DIPLOMAT*.

- 다만 미국의 유력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기사다 총리의 의회 연설 시간에 O. J. 심슨 사망 관련 뉴스를 메인으로 보도하는 등 미국 언론은 일본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며, 워싱턴포스트는 기사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며 워싱턴에서의 외교 일정 동안 일본 내 정치의 곤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함.<sup>8)</sup>

## 2) 일본

■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보다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한다는 이번 정상회담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임.

- 냉전 후 세계가 지금처럼 엄중한 시련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미·일이 결속하여 안보와 에너지, 우주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sup>9)</sup>
- 더 나아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대응하느라 아시아 지역 안보에 투여할 여력이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이 중국과 북한 문제 등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sup>10)</sup>

■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이후 가장 큰 변화인 만큼, 신중한 입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를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에게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 △일 체화에 따라 일본이 주체성을 잃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휩쓸릴 우려, △중국에 대한 대항만을 강조하는 것이 지역정세를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됨.<sup>11)12)</sup>
- 또한 미국에 대한 협력 내용에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sup>13)</sup> 헌법상의 제약도 있어 일본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sup>14)</sup>

8) "Biden to honor PM Kishida, reflect on Japan's growing international clout"(2024. 4. 10.),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4/04/10/biden-kishida-white-house-japan/1a7ad64c-f71a-11ee-9506-c8544e5c9d86\\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4/04/10/biden-kishida-white-house-japan/1a7ad64c-f71a-11ee-9506-c8544e5c9d86_story.html) (검색일: 2024. 4. 14.).

9) 「日米首脳会談 世界に広がった多面的な「協働」, 『読売新聞』,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40412-OYT1T50009/>(검색일: 2024. 4. 14.).

10) 위의 자료

11) 「(社説) 日米首脳会談 説明なき一体化の加速, 『朝日新聞』,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910263.html?iref=pc\\_rensai\\_1ong\\_16\\_article](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910263.html?iref=pc_rensai_1ong_16_article)(검색일: 2024. 4. 14.).

12) 「岸田・バイデン会談 問われる日本の外交戦略, 『毎日新聞』, <https://mainichi.jp/articles/20240412/ddm/005/070/067000c>(검색일: 2024. 4. 14.).

13) 「(社説) 世界の安定へ重責増す日米同盟,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K115050R10C24A400000/> (검색일: 2024. 4. 14.).

14) 「(社説) 米議会演説が問う日本の覚悟,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K121OW0S4A410C200000/> (검색일: 2024. 4. 14.).



### 3) 중국

-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및 남·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비방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등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불만과 반대 입장을 나타냄.<sup>15)</sup>
  -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은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으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함.
  - 미국과 일본 정부는 과거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약속한 바가 있고,<sup>16)</sup> 특히 일본은 과거 대만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했던 역사적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기에, 약속을 지키고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함.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일부 국가가 역외 국가를 끌어들이 정세를 가열시키고 있다고 하며, 중국은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견결히 지키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당사국과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함.<sup>17)</sup>
  
-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 일본, 필리핀이 상호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진영 대결 정치, 배타적 소그룹 결성 등을 통해 문제를 참여화하고 타국의 이익을 해치는 협력에는 견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냄.<sup>18)</sup>
  - 미국과 일본이 결탁해서 소집단을 만들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직면한 진정한 도전이라고 비판함.
  - 특히 기시다 총리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야말로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며, 주변 안보 위협을 과장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구실로 삼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함.

1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4年4月11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04/t20240411\\_11280275.shtml](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04/t20240411_11280275.shtml)(검색일: 2024. 4. 14.).

16) 미국, 일본은 각각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recognize)한 바 있음.

1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4年4月12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04/t20240412\\_11280916.shtml](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04/t20240412_11280916.shtml)(검색일: 2024. 4. 14.).

18) 위의 자료.

## 2. 공동성명 주요 내용<sup>19)</sup>

그림 1. 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주요 구성 내용



자료: 저자 작성.

### 가. 군사안보 분야

■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일의 역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조치에 대해 미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함.

-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적용됨을 재확인함.
  -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남서제도(오키나와 주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력(戰力) 강화조치에 대해 미국은 환영함.
  - 일본은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石垣島) 등에 육상자위대 기지를 신설하고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남서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임.
- 미국은 2022년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라 2027년까지 방위비 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고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일본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 환영함.

19)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문과 팩트 시트(FACT SHEET)를 토대로 작성함.



- 미국은 또한 일본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 및 그 운용지침의 개정이 인태지역의 역지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냄.
  -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일본정부가 2014년에 제정한 방위장비품의 수출과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규정으로 △분쟁당사국에 대한 이전 금지, △국제협력과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것,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에 대한 이전 시 사전에 일본의 동의 필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2023년 12월 일본은 파트너 국가가 완성품을 이전한 제3국에 자국 부품과 기술의 직접 이전을 허용하는 등 운용지침 일부를 개정함.<sup>20)</sup>

**■ 자위대와 미군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본의 반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이 연내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에 맞춰, 미국은 주일미군사령부에 독자적인 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위대와 미군 사이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주일미군사령부는 지금까지 독자적인 지휘권 없이 기지 관리와 훈련 감독 등의 기능만 맡아 왔고, 주일 미군에 대한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아태사령부가 갖고 있었음.
- 일본의 반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
  - 미국은 일본이 토마호크(TLAM)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획득하도록 훈련계획 수립 및 함정 개수(改修)를 시작하기로 함.
  - 또한 미·일 양국은 최첨단 극초음속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활공단계 요격용 유도탄(GPI)’ 협력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함.
- 미·일은 양국의 방위산업을 연계하는 데 있어 우선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본의 방위성과 미국의 국방부가 주도하는 ‘미·일 방위산업 협력·취득·유지보수 정기협약(DICAS)’을 개최하기로 함.
  - 우선 분야로는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미 해군 함정 및 제4세대 전투기를 일본의 민간 시설에서 공동 유지보수하는 것이 포함됨.

**■ 미·일 양자협력뿐 아니라, 지역 내 뜻을 같이하는 다른 파트너국(like-minded partners)과 다양한 소다자 협력체를 구축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추구하기로 함.**

- 쿼드(미·일·호주·인도)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함께, 미·일·필리핀 3국 사이의 경제안보 및 방위,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미·일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기초로 3국은 지역의 안보 촉진, 역지력 강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클린에너지 및 기술에 관한 협력 등을 지속하기로 함.
  - 미·일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호주와도 3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함.

20) 「防衛装備移転三原則とは 装備品輸出に一定の制約(きょうのこたば)」(2024. 3. 16.), 『日本経済新聞』.

## 나. 경제안보 분야

■ [개요]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AI와 양자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 반도체와 배터리, 중요 광물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등 폭넓은 영역을 다룬 점이 특징적임.

- [목표] 미·일은 기술혁신 촉진, 산업기반 강화, 강인(強靱)하고 신뢰성 있는 공급망 촉진, 미래의 전략적 신흥산업 구축 등과 함께 향후 10년간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 기술 및 관련된 전략을 최대한으로 정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방향] ‘미·일 경쟁력·강인성 파트너십(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Partnership)’에 따라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U.S.-Japan 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 등을 통해 중요 기술 및 신흥 기술을 개발·보호함으로써 미·일의 기술적인 우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제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1) 경제협력

■ 양국은 중요·신흥 기술 분야에서 상대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환영하고, 2024년 내 금융협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5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가치창조 촉진,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통한 공급망 취약성 대응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

- [민간 부문 협력 강화] 양국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재팬 이노베이션 캠퍼스’ 및 도쿄에 설립될 예정인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의 스타트업 환경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함.
- [금융협력 강화] 양국은 자본시장의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개혁 분야를 파악하며, 금융부문 협력을 위해 양국의 민관 관계자가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을 2024년 내에 개최할 계획임.
- [지속가능한 투자 연계] 2025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가치창조(SX: sustainable value creation)를 촉진하면서 미·일 민간기업과 투자기회를 연계하기 위해 공동 원탁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임.
- [투명·강인·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첨단 및 범용(레거시) 반도체 등 상호 특정된 전략부문에서의 공급망 과제 및 기회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의 틀 안에서 미국 상무부와 일본경제산업성 간에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함.<sup>21)</sup>
  - 미·일은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의해 초래되는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부문에서의 취약성에 대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21)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사이트 겐(齋藤健) 경제산업성 장관은 같은 날 미국 지나 러몬도(Gina M. Raimondo)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짐. 미·일 외무·경제 각료협의체인 ‘경제관 2+2’ 등에서 탈탄소에 필요한 중요 물자, 반도체, 배터리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동 기준이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脱炭素・宇宙、日米で推進 首脳会談、中国との競争激化 供給網整備で優位確保」(2024. 4. 12.), 『日本経済新聞』.

표 2. 미·일 정상 공동성명 중 민간투자 관련 주요 내용

회사명	투자 내용	신규투자 (USD)	비고
마이크로소프트	-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센터에 투자 -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200만 명 이상) - 일본 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설립 - 일본정부와 사이버 보안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	29억 (2년간)	일본 내 투자
구글	- 미·일, 태평양도서국 간 디지털 통신 인프라 개선(NEC 협력)	10억	
아마존 웹 서비스	- 기존 인프라를 확장하여 일본 내 AI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의 중추 역할 개선 - 총투자액은 370억 달러이며, 매년 평균 3만 500명의 정규직 지원	150억 (3년간)	
다이이찌산쿄	- 오하이오 뉴올버니 제조시설, 실험실 등 건설 투자 - 3년 동안 9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3억 5천	미국 내 투자
도요타	- 노스캐롤라이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통해 3,0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정 - 총투자액은 139억 달러이며 총일자리 약 5,100개 창출	80억	
혼다 에어크래프트 컴퍼니	- 노스캐롤라이나 혼다제트2600 모델 생산 예정 - 총투자액 5억 740만 달러 - 배터리용 전해질 용매 시설 프로젝트에 5억 달러 투자 예정이며, 일자리 60개 창출 예상	5,570만	
야스카와전기	- 위스콘신주 및 오하이오주, 로봇틱스 및 반도체 모션 솔루션을 위한 새로운 제조 공장에 2억 달러 투자 - 약 1,750명의 근로자 고용 예상	2억	
미쓰이E&S 페이스코(자회사)	- 미쓰이E&S는 브룩필드와 항만 크레인 제조를 위해 협력 중이며, 미국 항구의 안전한 인프라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후지필름	- 글로벌 세포치료제 위탁개발 및 제조역량 확대를 위해 위스콘신 메디슨과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에 있는 자회사에 각각 2억 달러 투자 예정 - 최대 16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4억	

자료: "FACT SHEET: Japan Official Visit with State Dinner to the United States"(2024. 4. 10.),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Statements and Releases.

## 2) 중요·신흥 기술 및 이노베이션

■ 이 분야에서 미·일 양국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반도체, 과학기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 [AI] 산관학의 연구협력 강화, 양국 기업의 자금 제공(1.1억 달러)을 통한 AI 연구 파트너십 등의 추진을 환영함.

-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엔비디아, 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 기업 연합의 자금 제공(1.1억 달러 규모)을 통해 '워싱턴 대학-츠클라 대학' 및 '카네기멜론 대학-게이오 대학'에서 새로운 인공지능(AI) 연구 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음.

○ 컴퓨팅 및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와 미 엔비디아 간의 AI 및 양자기술 협력 개시를 환영함.

- 미국 에너지부와 일본 문부과학성 간의 고성능 컴퓨팅 및 AI에 관한 새로운 사업 결정,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ANL) 간의 'AI for Science'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약정(project arrangement)의 개정을 환영함.<sup>22)</sup>
- △사쿠라인터넷 및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계산자원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의 GPU 제공,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일본의 AI 기반 모델 개발 기업에 대한 기타 계산자원 제공 등 생성형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미·일 기업 간 협력을 환영함.
-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더욱 진전시킨 양국의 AI 안전협회(AI Safety Institutes) 설립과 상호 지원에 대해 계획함.
  - AI를 위한 정책 틀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일본의 AI 사업자 가이드라인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간의 교차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의 리스크 및 위해(危害) 저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양국은 정부 제작의 공식 콘텐츠를 인증 및 라벨링하고,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AI에 의해 수정 또는 조작된 콘텐츠를 검출·특정하며, 기술연구 및 규격개발에 관해 독자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 [양자기술]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부문에서 양국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 정부 산하기관 간 협력에 서명함.

- 양자기술 공급망 구축 및 관련 표준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첫걸음으로서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협력 각서에 서명함.

■ [반도체] 양국간 반도체 협력의 오랜 역사에 근거하여 연구개발(R&D), 설계, 인재육성 등 부문 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어젠다를 책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일본의 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LSTC)와 미국의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국가첨단패키징 제조프로그램(NAPMP) 등 연구 이니셔티브 간의 논의 개시를 환영함.
- 특히 차세대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에 관한 양국의 민간부문 간 및 민간부문 내에서의 공고한 협력을 환영함.
  - 미·일 기업들은 글로벌 아이온 포럼(Global Innovative Optical and Wireless Networks(IOWN) Forum) 과 같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광반도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하고 있음.
- 미 노동부는 첨단 반도체 연구 및 제조와 관련한 차세대 설계자, 제조자 및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논의하는 미국의 민간부문 및 교육기관 간 기술 워크숍에 일본의 반도체 분야 카운터파트를 초청할 계획임.

22) 미·일 간 AI 협력의 중점은 생성 AI의 핵심이 되는 '기본 모델'의 상호 이용에 있음.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2023년에 이 생성 AI 기반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日米生成AI研究協力 共同声明に反映へ データ相互利用など」(2024. 4. 9.), 『日本経済新聞』.

- [과학기술] 신규 과학기술 파트너십 출범, 국립과학재단 간 협력 확대,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새로운 과학기술 파트너십 시작] 양국은 미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이노베이션(GIST: Global Innova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을 통해 이노베이션 촉진 및 지식교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에 공헌하는 기업인의 대응에 관한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로 함.
    - 또한 미·일 디지털 이노베이션 허브·첨단기술 워크숍(U.S.-Japan Digital Innovation Hub and Advanced Technology Workshop)의 이니셔티브하에서 디지털 및 신흥 기술의 관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 대응을 지지함.
  - [국립과학재단 협력 확대] 과학기술 R&D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코프스(I-Corp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간 협력각서 서명을 환영함.
    - NSF는 바이오경제 연구를 위한 2,500만 달러의 조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JST는 적어도 3개의 프로젝트 조성을 지원하기로 함.
  - [국제공동연구 강화] 미국 에너지부 산하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PNNL)와 일본 후쿠시마 국제연구 교육기구(F-REI)는 에너지, 로봇, 방사선과학, 원자력 재해 대응, 농업 등 선정된 분야의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표 3. 미·일 정상회담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내용

구분	협력 분야
경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협력 강화]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미·일 양국에 대한 투자 가속화 지원</li> <li>- [금융 협력 강화] 양국의 민·관 관계자가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을 2024년 내에 개최</li> <li>- [지속가능한 투자 연계] 2025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가치창조(SX)를 촉진</li> <li>- [투명·강인·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범용(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정보공유, 정책공조 및 비시장적 정책·관행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에 대해 공동 대응 가속화</li> </ul>
중요·신흥 기술 및 이노베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산관학의 연구 틀 신설, 양국 기업 등이 1.1억 달러를 거출</li> <li>- [양자기술] 양자 컴퓨팅에 관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간 협력 강화</li> <li>- [반도체] 공동 기술 어젠다 책정 모색, 차세대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관련 협력 추진</li> <li>- [과학기술] 신규 과학기술 파트너십 출범, 국립과학재단 협력 확대,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추진</li> </ul>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에너지/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이행을 위한 고위급 대화 개최, 야심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책정,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공급 확대, 수소 협력 등 추진</li> <li>- [중요 광물] PGII, MSP, RISE 등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추진</li> <li>- [에너지 협력] 퓨전 에너지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대응 추진, 미국의 부유식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일본이 참여</li> </ul>
바이오기술, 보건 등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치료] 양국 정보교환 및 치료제 개발 논의</li> <li>- [국제보건] 양국 정부당국간 국제보건 우선과제의 추진 방법 논의</li> <li>- [바이오기술, 보건] 첨단 바이오기술의 개발 촉진, 중요기술 보호, 안전한 공급망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바이오기술 및 보건 협의 시작</li> </ul>

자료: 미·일 정상 공동성명 및 팩트 시트 자료를 정리([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it\\_000001\\_00501.html](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it_000001_00501.html), 검색일: 2024. 4. 12.).



### 3)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 이 분야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에너지 협력 심화 등에 대한 협력하기로 함.

■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로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 착수, 청정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 야심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책정, 메탄 배출 데이터 개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공급 확대, 수소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양국은 보완적이고 혁신적인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에너지 이행의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본의 그린전환(GX) 추진전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내 정책을 추진하고, 그 시너지 효과와 영향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고위급 대화(high-level dialogue)를 시작함.<sup>23)</sup>
-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송전망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송전망의 현대화를 위한 모범 사례 공유 등을 계획함.
- 미·일 기후 파트너십의 진전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에 맞춰 야심찬 2035 NDCs를 책정할 계획임.
- 메탄 감소 대책을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메탄 배출 데이터를 개발·보급하고자 함.
-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에탄올 유래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개발과 원료의 세계적인 공급 확대, SAF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수소 허브 구축에 관한 미·일 기업 간 협력의 진전을 환영하고, 대규모의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수소의 이용·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모색함.

■ [중요 광물]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함.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의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sup>24)</su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sup>25)</sup> 강인하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RISE: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sup>26)</sup> 등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23) 미·일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대통령 선임고문과 일본 GX를 담당하는 사이토 겐(齋藤健)경제산업성장관 간에 장관급 대화가 개최됨. 「脱炭素 宇宙, 日米で推進 首脳会談, 中国との競争激化 供給網整備で優位確保」(2024. 4. 12), 『日本経済新聞』.

24) PGII는 미국 주도로 2022년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글로벌 협력 구상임. 미국은 앙골라의 로비토 회랑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도 노선 확장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투자가 추진되고 있음. “Factsheet on the G7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 6, <https://www.mofa.go.jp/mofaj/gaiko/summit/hiroshima23/documents/>(검색일: 2024. 4. 12.).

25) 2023년 6월에 출범한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서, 한국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EU, 독일, 핀란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참여함.

26) 2023년 10월 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RISE를 위한 파트너십'이 출범하였음. RISE는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광물의 채굴, 정련·가공, 상품 제조·조립)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성장 기회 부여,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 등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임. 기획재정부(2023. 10. 12.), 「추 부총리,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계기, 국제행사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보도자료.



를 모색하고, 미·일 및 인태 지역 내 우방국의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대응을 지원하기로 함.

■ [에너지 협력] 미·일 미래 에너지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미국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참여 등을 통해 에너지 협력을 심화하기로 함.

- 미래 에너지의 실증 및 사업화를 가속하기 위한 미·일 전략적 파트너십(U.S.-Japan Strategic Partnership to Accelerate Fusion Energy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의 발표를 통해, 미래 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주도하기로 함.
- 일본은 미국이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디자인, 개발 및 제조 분야의 프로젝트인 Floating Offshore Wind Shot<sup>27)</sup>의 첫 번째 국제적인 협력자로 참여하기로 하고, 기술비용 절감 및 탈탄소화 등을 가속화하기로 함.
  - 미국은 학계와의 제휴를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비용 감축과 양산화를 목표로 일본이 새롭게 시작한 산업 플랫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연구조합(FLOWRA)'을 환영함.

#### 4) 바이오기술, 바이오의약품 및 보건 관련 협력

■ 양국은 △암 치료제 정보교환 및 개발, △국제보건 우선과제 추진, △바이오기술 및 보건 협의 등에 협력하기로 함.

- [암 치료]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암 치료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 공동 임상시험, 치료제 부족 예방법을 포함해 치료제 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일본 PMDA가 워싱턴 D.C.에 대표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임.
- [국제보건] 미국 국제개발청(USAID) 및 일본 외무성은 공통의 국제보건 우선과제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바이오기술 및 보건 협력] 양국은 책임 있는 개발 촉진, 중요 기술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 확립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미·일 바이오기술 및 보건 협의의 시작을 환영함.
  - 양국의 정부부처, 학계, 민간기업 간 긴밀한 제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다. 기타 분야

■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양국은 북한이 외교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비롯해 탄도미사일과

27) 2035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에너지 비용을 메가와트시(MWh)당 45달러로 70% 이상 절감하고자 하는 계획임. "Floating Offshore Wind Shot," <https://www.energy.gov/eere/wind/floating-offshore-wind-shot>(검색일: 2024. 4. 12.).

대량파괴무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확한 활동을 멈출 것을 요구함.

-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납치문제 즉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며, “북일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조(북일) 쌍방의 이익에 합치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언급함.<sup>28)</sup>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도 협의를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에 매우 찬성한다”라고 언급함.

■ 미·일 공동성명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제시함.

- [대만 해협]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표명”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 [남중국해]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일체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중국에 의한 위협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과 타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함.
  - 2016년 남중국해에 관한 중재 판결이 관계국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 판결에 대해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해당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사전 충족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반발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sup>29)</sup>
- [중동 정세] 하마스에 의한 테러 공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하게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권리를 재차 확인하면서, 그와 동시에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두 국가 해법(Two State Solution)’을 지지하면서 적어도 6주간에 걸쳐 가자지역에서 즉시, 그리고 지속적인 정전(停戰)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러-우 전쟁]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실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확인함.
  -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기타]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에 대한 해양 방출을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조치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28) 「バイデン氏、日朝首脳会談を支持「岸田首相を信頼」(2024. 4. 12.), 『日本経済新聞』.

29) 허재철(2022), 「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본 중-아세안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중소연구』, 제174호, p. 65.

### 3. 시사점

#### 가. 동아시아 지역 정세

■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주변국의 다양한 외교활동을 통해 볼 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진영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

-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을 도와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중국 및 러시아, 북한에 대한 견제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임.
  - 미·일은 양자뿐 아니라, 양국을 중심으로 제3국을 결합한 다양한 소다자 협력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일이 견제 또는 비판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미·일+a vs.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조가 보다 고착되고 있음.
  - 중국의 권력 서열 3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미·일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함.<sup>30)</sup>
  - 마찬가지로 미·일 정상회담 기간, 러시아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의 연내 중국 국빈 방문을 확인하면서, 양국 사이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sup>31)</sup>
  - 푸틴 대통령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한 바 있어, 방중 시기를 전후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sup>32)</sup>
  - 한편 러시아는 3월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편을 들기도 하였음.<sup>33)</sup>
- 글로벌 차원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대결 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것이 우리의 대외경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함.

■ 글로벌 이슈 및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미·일 정상회담 및 기시다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가 됐음을 재확인받았고,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짊어질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군사 분야 등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하며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냄.

30) 「北김정은, 中자오러지 만나 “북중관계 새 장 써내려갈 것”(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3040600009?input=1195m>(검색일: 2024.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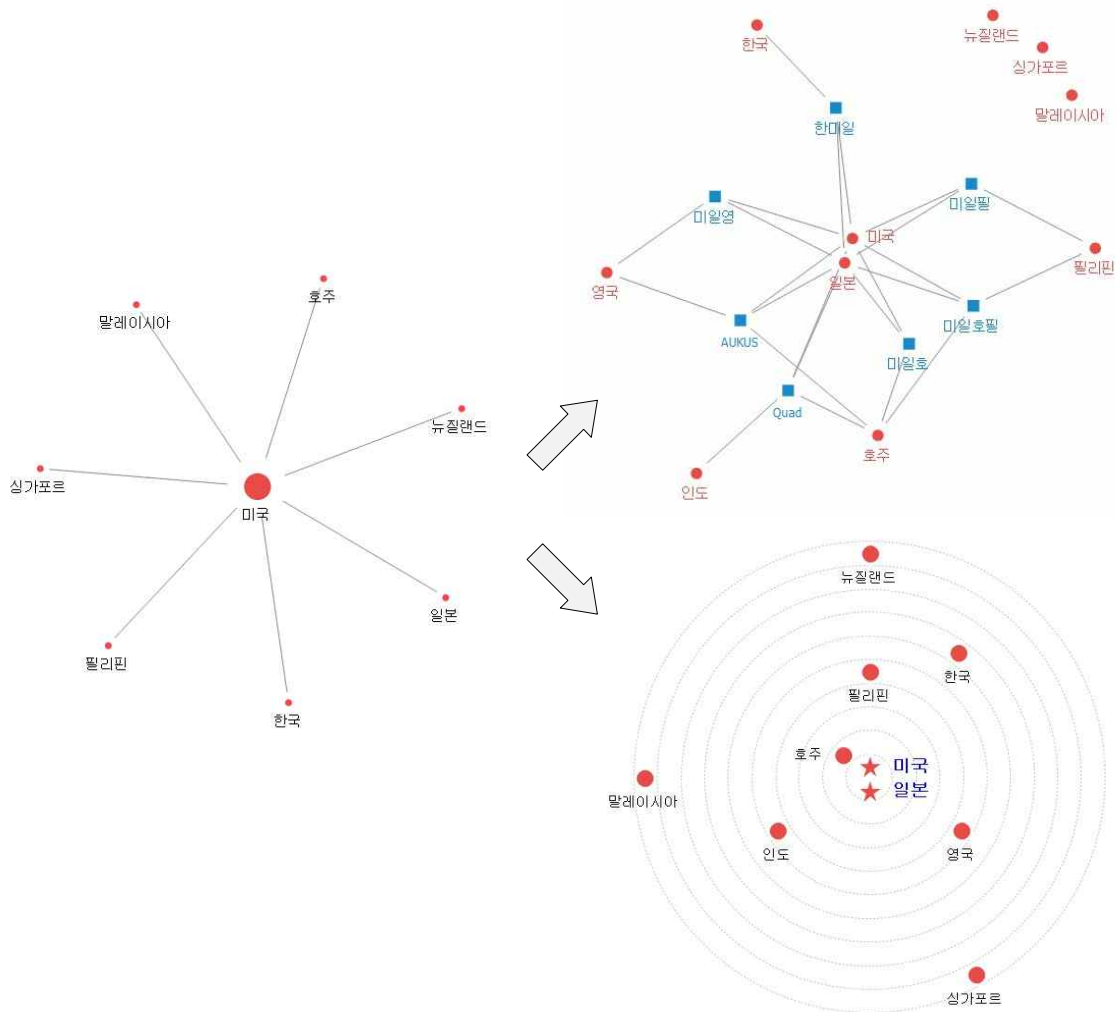
31) 「중국 가는 푸틴, 북한도 가나»,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1101039910294007>(검색일: 2024. 4. 15.).

32) 「“푸틴, 5월 방중 시진핑과 회담”...방북도 조율 중»,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403201832502941](https://www.ytn.co.kr/_ln/0104_202403201832502941)(검색일: 2024. 4. 15.).

33) 「北 '유엔 대북제재 패널 임기 연장 무산' 러시아에 “감사”», 『뉴스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4\\_0002687229&cID=10101&pID=101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4_0002687229&cID=10101&pID=10100)(검색일: 2024. 4. 15.).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다양한 안전보장 협력체를 바탕으로 일본의 군사·안보 분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 강화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위상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정보 공유 및 방산 분야 기술협력,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유지 등의 차원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과 역사 인식 및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우리 국내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것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2.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일본의 위상 강화:**  
기존의 거점 중심(Hub and Spoke, 좌) 구조 → 최근의 격자형(lattice-like, 우) 구조



주: 링크는 동맹관계 또는 안보협력 관계를 나타냄. 우상(右上)은 안보협력의 단순 연결관계를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이고, 우하(右下)는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나타낸 것으로 중심에 위치해 있을수록 중심성(위상과 역할)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NetMine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최근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접촉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던 만큼, 우리는 북일 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까지 국교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서,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전후 처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 등을 배경으로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이견으로 인해 북·일 교섭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북일 국교정상화는 우리와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 등 다양한 중요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해당사자로서 주동적으로 관여해나갈 필요가 있음.

## 나. 한국의 경제안보

-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우주, AI, 양자기술,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핵심신흥기술(CET) 부문에서 공동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한·미·일 3자간 기술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미·일 양국이 혁신 촉진, 산업기반 강화,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촉진, 미래 전략 신흥 산업 구축 등을 위해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한·미·일 3각 협력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미·일과 한국의 해당 분야 기술협력이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 개최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국간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역량은 물론 안보 및 군사협력 측면에서 한·미·일 3국 기반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sup>34)</sup>
    - CET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기술과 자금력, 한국의 기술 및 제조 역량,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합해질 경우, 한·미·일 3각 기술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AI, 양자기술 분야에서 미·일과 함께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논의에 동참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동 분야에서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다만 CET 분야에서 한·미·일 3각 기술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주요 물자 수출통제 등 대응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중국은 앞서 미국과 네덜란드가 협력하여 자국에 대한 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실시한 데 대해 반도체 제조용 갈륨 및 디스플레이 소재 게르마늄의 수출통제로 맞대응한 바 있어, 유사한 사례가 한국에 대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함.

34) "Sullivan stresses 'synergies' i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 Korea, US, Japan"(2024. 4. 10.), *The Korea Herald*,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40410050026>(검색일: 2024. 4. 12.).



- 아울러 미·일 양국은 ‘경제판 2+2’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자국 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탈탄소, 부품 안정공급 등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sup>35)</sup> 이러한 움직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은 이러한 공통 기준의 정비를 통해 상대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유럽과의 정책 협조로 국제적인 규정을 만들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의 강화로 연결하고자 함.

■ 미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 장비 분야 생산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위부문에서 ‘주요방기 전략’을 통해 방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자위대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미국은 일본 민간 조선소에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수리·정비(MRO) 사업을 정기적으로 위탁하고자 함.<sup>36)</sup>
  - 미 해군은 이미 미쓰비시중공업의 요코하마 조선소 및 기계 공장에서 2척의 미 군함 보수를 맡긴 바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에도 일본의 민간 조선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임을 명기함.<sup>37)</sup>
- 이번 공동성명에는 일본기업이 캘리포니아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과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선박이나 항만 시설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 중국기업을 배제하여 해양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 한편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오커스(AUKUS)의 필라(Pillar)2에 일본, 한국 등 다양한 파트너국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sup>38)</sup>
  - 오커스 필라2의 협력 가능 대상국으로 한국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특히 오커스 필라2가 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오커스 필라2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 속에서 북한 관련 안보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존 오커스 3국이 협력 가능 대상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컨센서스를 도출한 후 공식적으로 초청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오커스 필라2 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며, 논의 과정에도 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제조 설비 재건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업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사이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해 보임.

35) 「日米、補助金共通ルール 半導体など脱中国依存急ぐ 首脳会談で、過剰な保護主義抑止」(2024. 4. 3.), 『日本経済新聞』.

36) 중국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만큼 성장한 반면,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1980년대 초 조선업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해당 산업의 쇠퇴가 진행되었고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병목현상에 시달리고 있음.

37) 미국 입장에서 향후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자국 해군이 미국 본토까지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군함을 신속히 보수하여 전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38) U.S. Department of State(2024. 4. 9.), “NSC Preview of the Japan State Visit and the U.S.-Japan-Philippines Trilateral Leaders’ Summit,” <https://www.state.gov/briefings-foreign-press-centers/japan-state-visit-and-us-japan-philippines-trilateral-summit>(검색일: 2024. 4. 16.).



-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Carlos Del Toro) 미 해군성 장관은 자국 해군함 MRO 사업 및 조선소 투자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화그룹과 HD현대 수장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은 미·일 정상 회담, SAS(Sea Air Space) 일정의 영향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보임.<sup>39)</sup>
  - HD현대중공업은 북미 지역 최대 규모 해양방위산업전인 SAS(Sea Air Space)에 참여하여 호주 함정 수출을 위한 GE에어로스페이스<sup>40)</sup>와 함정 추진체계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L3해리스테크놀러지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국내 방산 업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방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 함대 건조 기술 등 방산 시장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도 필요해 보임. **KIEP**

39) 「HD현대 정기선-한화 김동관 전면 나섰더니...美 국방부 공식 초청으로 '회담」(2024. 3. 4.), 『THE GURU』,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7444>(검색일: 2024. 4. 13.).

40) GE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추진용 가스터빈의 기술력을 보유함.